



# 주간 통일정세

2007-06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 만경대 혁명학원, 강반석 혁명학원 창립 60주년 행사에 참가한 졸업생 및 교직원 면담 (10/18,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금수산기념궁전에서 ‘혁명가’ 유가족을 위한 학교인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창립 60주년 행사에 참가했던 졸업생과 교직원들을 만났다고 보도
- 베트남공산당 서기장 직접 영접 (10/16, 연합)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6일 평양 순안공항에 직접 나가 농 득 마잉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영접
  - 2000년 이후 김 위원장이 직접 공항에서 영접한 인사로는 후진타오 주석, 김대중 전 대통령(2000년 6월)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2000년 7월),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2001년 9월) 등임

#### 나. 경제 관련

##### <수해 관련>

- 수해지역에 개한 ‘혁명적 개선 대책’ 촉구(10/15,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 북한 노동신문은 10~11월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맞아 ‘국토관리사업은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큰물 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에 기본을 두고 가을철 국토관리사업을 그 어느 때보다 혁명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며 “큰물 피해를 입은 지역과 대상들 뿐 아니라 국토관리사업과 관련한 자기 단위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혁명적인 개선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
- 식량문제 해결 위해 국제적 협조 강조(10/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세계식량의 날을 맞아,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긴장한 식량 사정은 인류가 이 권리를 누리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적인 식량부족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매개 나라와 인민이 알곡 생산을 늘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국제적인 협조와 교류를 활발히 벌려 나간다”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



<공업 및 기타>

● **고철수집운동 성과 소개 (10/21,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각지에서 금속공장 지원사업이 계속 힘있게 전개되고 있다”며 “평양시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1.2배에 달하는 파철을 수집했다”고 ‘고철수집운동 모범사례’를 부각시킴

● **주요 도시 상하수도망 정비 강화(10/20, 조선중앙방송)**

- “(내각) 도시경영성은 하부구조(기반시설) 건설을 잘하며 도시들의 하부구조를 보수 정비하기 위한 빈틈없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무엇보다 상하수도망을 보수 정비하기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있으며,  
- 도시경영성 책임간부들은 평양, 함흥, 신의주시를 비롯한 각 도(道) 소재지에 내려가 보수 정비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 **남북정상선언 경협합의에 대한 북한내부의 긍정적 평가 부각 (10/16, 조선신보)**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16일 내각과 학계, 사회단체 등의 고위인물들의 말을 빌려 전한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 내부의 반응과 표정은 통일이 앞당겨졌다는 등의 ‘정치적’ 성격보다는 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 특히 “북남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확대발전시킬 데 대한 선언의 5항은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일꾼들의 흥분을 자아냈다”고 밝힘.

● **北-베트남 경제발전과 대외관계 개선에 대한 “지지·연대”성 강조 (10/16, 노동신문;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공식방문하기 위해 이날 평양에 도착하는 마잉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북에 관한 노동신문 사설에서 베트남의 경제발전과 대외관계 개방사실을 지적하면서 “우리 인민은 부강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웬남(베트남) 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고 있다”고 밝힘

● **3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유럽기업 참가에 대한 사실 부각 선전(10/15, 조선신보)**

- 지난 8~11일 평양시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평양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유럽기업협회 소속 기업을 포함해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 프랑스 등 많은 유럽 기업이 참가해 “북한과의 무역·투자를 장려하며 적극 협조할 의향을 밝혔다”고 선



하고, 이 전람회에 유럽회사들의 참가가 “가장 큰 규모에서” 이루어졌다고 함으로써 유럽기업의 참가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음

- 유럽기업협회는 북한 기업과 유럽 기업간 연계를 목적으로 2005년 평양에서 구성됐으며, 참여기업 분야는 은행, 정보산업, 제약, 해상운수, 철도, 항행, 공업, 광업, 태양에너지양수기, 에너지절약 기술, 상품 검사, 소비품 무역 등이고, 이들 가운데 “은행업, 광업, 인터넷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제약 분야 등에서선 조선측과 이미 합영 또는 다른 형태의 기업협조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

<기타>

- 비듬·탈모방지 천연성분 린스 개발(10/20, 연합)
- 北 컴퓨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10/18, 평양방송)
  - 북한은 오는 24~31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제18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가 개최됨.

다. 사상교양 관련

- ‘제국주의의 유화정책’ 경계 촉구(10/18 노동신문)
  - ‘제국주의 세력과는 견결히 맞서 싸워야 한다’는 노동신문의 글을 통해 “제국주의자들이 유화정책을 쓰면서 너스레를 떠는 데 절대로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 ‘항일빨치산 회상기’ 전자도서 제작 소개(10/18, 평양방송)
  - “전자도서에는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1권부터 10권까지 원문이 들어 있으며 당시의 전투 약도와 지도, 혁명 전적지와 혁명사적지의 회상자료가 포함돼 있다”면서 “전자도서에는 ‘적기가’, ‘결사전가’를 비롯한 10여곡의 혁명가요와 회상기 원문의 녹음자료, 용어해설이 첨부돼 있다”고 소개
- 주체사상 국제적 보급을 위한 ‘국제 김일성 기금’ 창설 및 이사장 선정(10/17,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은 고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을 국제사회에 보급하기 위한 ‘국제 김일성기금’ 창설식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기금 이사장을 영국의 조니 혼(35) 글로벌그룹 회장 선임

라. 주요직책 인사 관련

- 태종수 내각 부총리로 임명(10/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6일 내각 부총리에 태종수를 임명
  - 태종수 신임 부총리는 1970년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1976년 희천정



밀기제공장 지배인, 1980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역임  
- 지금까지 내각 부총리는 로두철, 광범기, 전승훈 등 3명이었음

- **북한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에 김정각(10/16, 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16일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인 농 득 마잉 공산당 서기장의 방북을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의 평양비행장 출영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각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호칭한 것으로 보아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이었던 김정각 대장이 북한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
  - 김정각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출신으로 1992년 인민무력부 부부장, 2002년 4월 대장 진급, 1998년 최고인민회의 제10, 11기 대의원 역임
  - 북한군 총정치국은 국장 조명록(79) 차수 외에 상무부국장, 현철해 대장 부국장 김기선 대장, 심상대 상장, 정태근 중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제1부국장은 알려지지 않아 왔음

## 2. 대외정세

### 가. 북·일 관계

- **日, 과거청산위해 강제징용 보상 주장(10/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일제의 조선인 강제연행 범죄에 대한 보상은 과거청산의 중요 요구’라는 개인 필명의 글을 통해 일본의 역사왜곡 시도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강제연행 죄악을 실증하는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
- **송일호 北대사, 북·일관계 전망 유보 (10/17, 연합뉴스)**
  - 송일호 북한 외무성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17일 “북일관계는 아직도 좀 두고 봐야 되겠다”고 밝힘

### 나. 기타 외교 관련

- **北 최태복 의장 시리아 방문: 골란고원 시리아 영유권 지지(10/20, 시리아관영 사나통신)**
  -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시리아를 방문하고 골란고원에 대한 시리아의 영유권을 지지하는 북한 입장을 재확인
- **北-이집트, 문화협조 집행계획서 체결(10/16,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이집트가 지난 11일 ‘2007~2009년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이행 집행계획서’를 체결
  - 조인식에는 이집트를 방문 중인 전현찬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





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과 이집트 외교부 관계자들이 참석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7월 이집트를 방문했으며 이집트 오라스콤은 북한의 상원시멘트 공장에 투자를 계획하는 등 북한과 이집트 간 관계진전을 보아고 있음

### 3. 대남정세

#### 가. 대남관련

##### ● 남-북-해외 왕래·접촉·연대연합 강화 주장(10/21,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남과 북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 계급과 계층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워 “왕래와 접촉, 대화와 연대연합을 적극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리 조선 민족은 그가 어디에서 살건 관계없이 한핏줄을 나눈 단일민족으로서 능히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신뢰하고 화해하며 민족적 단합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으며,
- “화해와 단합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 방도가 바로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 사이의 래왕과 접촉, 대화와 연대연합”이라며 “6.15 시대가 열어놓은 길을 따라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이 서로 오가며...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반드시 대단결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줬다”고 말하고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해” 연대연합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시킬 것을 주장

##### ● 北해군, 南전함, 영해침범 주장(10/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21일 남측 해군 전투함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영해를 침범했다며 “남조선 군당국의 처사는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노골적인 도전이며, 북남관계를 또다시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려는 정략적 기도의 산물”이라고 주장
- 올해 북한 해군사령부가 우리 해군의 북측 ‘영해 침범’을 주장하고 대응 경고를 한 것은 지난 5월 3차례와 6월 1차례 있었음

#### 나. 남북교류

##### ● 北지하자원 2차 현지 공동조사 실시 및 경공업 지원 관련 남측기술단 2차 방북 예정(10/15, 연합)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에 따라 함경남도 단천지역 3개 광산에 대한 2차 현지 공동조사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실시



- 1차 공동조사는 지난 7월 말~8월 중순 이뤄졌으며 남북은 당초 9월  
께 2차 공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남북정상회담 및 북측 수해  
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짐. 남북은 연내 3차례의 공동조사를 실시하  
기로 합의한 바 있음
- 북한 경공업 지원을 위한 남측 기술지원단의 북측 경공업공장 2차  
방문도 오는 23~27일 이뤄짐
- 1차 방문은 8월에 이뤄졌으며 기술지원단은 섬유와 신발, 비누 분야  
전문가와 통일부 관계자 등 10여명으로 구성

● 제16차 남북 이산가족 가족 250여명 상봉(10/15, 연합)

- 통일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상봉행사에 특수이산가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특수이산가족 20명에 대해 북측에 생사확인을 의뢰했으  
나, 북측이 19명은 확인 불가능, 1명은 사망으로 통보해왔기 때문임
- 남북자. 국군포로 가족들은 제2차 이산가족 상봉 때부터 2~3명이  
특수이산가족 형태로 상봉행사에 참여

● 개성공단 1단계사업 준공식 개최(10/15, 연합)

- 한국토지공사는 개성공업지구 1단계 조성공사 준공식을 16일 개성  
공단 내 만남의 다리에서 개최한다고 밝힘

☀ 북한연구실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미·북 관계

● 힐, “북 플루토늄 50kg 폐기해야 평화협정 가능”(10/16)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호주의 싱크탱크인 「시드  
니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올해까지는 북한의 핵시설 폐기를 마  
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북한이 자국 핵무기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생산한 플루토늄 50kg을 전부 포기하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갈 계획”  
이라고 말했음
- 또한 북한이 현재 보유중인 플루토늄 50kg을 폐기해야 미국과의 관  
계정상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착수와 궁극적으로 평화협  
정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아직 북한이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플루토늄 50kg 문제가 향후 6자회담 진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플루토늄 폐기를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미국은 대북 관계정상화를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음

● **부시, “북 핵확산도 신고 대상”(10/17)**

-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과 시리아간 핵커넥션 의혹과 관련, 북한의 핵확산 문제도 6자회담의 협상대상이라고 밝혔음

● **미, 향후 3주내 북핵 불능화 착수 가능(10/18)**

-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 기술팀(8명)을 이끌었던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이 베이징에서 향후 3주안에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과정을 사실상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음

● **미 불능화 2차 실무팀, 방북(10/20)**

- 북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작업을 위한 1차 실무팀(10/11~18)이 평양을 출국한데 이어, 12명으로 구성된 2차 실무팀이 방북했음

나. 일·북 관계

● **북·일, 이달 중 실무회의 개최 합의(10/14)**

- 북·일 양국은 선양에서 국교정상화 교섭 실무자간에 열린 비공식 협의를 통해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를 이달 중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음
- 필요에 따라서는 연내에 실무회의를 몇 차례 더 갖고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하였음

**2. 주변국 관련**

가. 중국 관계

● **후진타오, 2020년에 1인당 GDP 4배로 확대**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에서 2020년 1인당 GDP를 2000년의 4배로 끌어올리겠다고 목표치를 제시했음 (10/15)
- 중국의 1인당 GDP는 2000년 856달러, 2006년 2,010달러로 2020년에는 3,500달러 수준으로 증대하겠다는 계획임





● 17차 전대, 폐막(10/21)

- 중국 공산당은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204명의 중앙위원들을 새로 선출한 뒤 제17차 전국대표대회를 공식 폐막했음
- 17전대 대표들은 또 후 주석이 제창한 신정치이론인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론’을 당장(黨章)에 삽입했음
- 이번에 새로 선출된 중앙위원들은 인민대회당에서 제17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7기 1중전회)를 열고(10/22) 정치국원 24명과 정치국 상무위원 9명 등 최고 지도부를 선출함

나. 미·중 관계

● 미 의원, 탈북자 관련 결의안 제출(10/15)

- 에드 로이스 미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공화)은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음

● 미·중, 달라이 라마 둘러싼 외교갈등

- 미 의회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에게 미국에서 민간인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영예인 황금메달을 수여(10/15)함으로써 중국의 큰 반발을 야기하였음
- 중국은 양제츠 외교부장이 미국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주중 미 대사를 소환(10/18)하며 강력 반발하여, 달라이 라마 문제는 미·중간 외교갈등의 불씨를 지폈음

동북아연구실 제공